

#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 한시 해석의 문제점

— 懸吐와 對偶를 중심으로 —

吳 錫 環\*

### <目次>

- |           |           |
|-----------|-----------|
| I. 序言     | Ⅲ. 律詩의 문제 |
| Ⅱ. 絶句의 문제 | Ⅳ. 結語     |

### <국문 초록>

본고는 보다 나은 한문 교과서의 編蓄와 보다 바람직한 漢文教育을 摸索하는 과정의 하나로 作成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편찬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상에 있어서의 漢詩를 해석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현토와 대우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논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한 것이다.

漢詩의 올바른 해석은 漢詩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교과서에 선별된 漢詩의 예술성과 문학성이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야만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그 우수성이 확인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 문이다.

詩體중에서 가장 짧고 명료한 것이 絶句詩이다. 絶句詩는 起·承·轉·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起句는 詩想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며, 承句는 起句의 시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며, 轉句는 詩想에 변화를 주어 시상을

\* 조선대학교 / gosan-man@hanmail.net

전환시키며, 結句는 시상을 마무리 짓고 주제를 담아 끝을 맺는 부분이다. 절구시의 對偶는 八句로 이루어진 律詩의 반을 截取해서 이루어지니, 起句와 承句가 對偶가 되기도 하고, 轉句와 結句가 모두 對偶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전혀 對偶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對偶가 되는 구절의 정확한 對가 되는 문학적 해석이 詩의 운율과 문학적성을 살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최고로 압축된 詩語를 작가의 의도에 맞게 絶妙한 해석을 가하는 것이 시의 예술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석을 가할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五言詩에서는 되도록 두자와 석자의 구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주고, 七言詩에서는 녀자와 석자, 또는 두자와 다섯 자의 구성을 고려하여 해석해 주어야 한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은 규칙적인 해석의 틀을 보여줄 수 있고, 해석도 부드러워질 것이다.

律詩는 首聯과 尾聯은 散句로 對偶를 이루지 않고, 頷聯과 頸聯은 出句와 對句가 반드시 對偶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律詩에서는 시의 운율과 예술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이 바로 頷聯과 頸聯이며, 이 부분에 의해 시 전체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頷聯과 頸聯의 對偶에 맞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

對偶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주로 같은 종류가 對를 이루어 사물은 사물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색채는 색채끼리 對를 이룬다. 이는 상대적인 경우가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같은 의미가 오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독자의 감정을 점점 고조시키는가 하면, 어떤 때는 독자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경우도 있다. 또 독자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슬프거나 기쁜 감정에 빠져 들게도 한다. 이 모든 것이 對偶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詩에서 對偶를 놓는 것은 詩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며, 바로 시의 문학적성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만큼 중요하다.

漢詩에서는 吐를 일정하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한시를 노래로 생각하고 읊조릴 때의 토를 붙이는 것이다.) 교과서의 漢詩는 읊조리는 것보다는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吐를 붙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배우는 대상이 고등학생인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文章에서도 그러하지만 詩에서도 懸吐는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要因이 된다. 吐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句節의 해석이 달라지고 다음 句節과의 文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吐를 붙이는 것은 詩를 해석하고 감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詩에서는 정확한 吐를 붙이고 對偶에 맞춘 문학적인 해석도 아주 중요하지만, 감상을 제대로 하여야 시에 숨겨진 ‘言外之意’도 찾아낼 수 있고, 漢詩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예술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감상도 吐나 對偶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吐, 對偶, 생명력, 문학적성, 예술성

## I. 序言

본고는 보다 나은 한문교과서의 編著와 보다 바람직한 漢文教育을 摸索하는 過程의 하나로 작성하였다. 檢認定教科書는 교육과학기술부의 教科書編纂指針에 맞추어 編纂한 것이고 보면, 인용하는 漢詩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한시부분에 있어서 懸吐와 對偶가 적당하며 해석이 현장에서 지도하는 데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편찬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상에 있어서의 한시 해석의 문제점을 그 懸吐와 對偶에 관한 부분을 논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국민교육용 기초한자인 1800자중 이미 중학교에서 배운 900자의 한자를 바탕으로 나머지 900자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편찬되어져있다. 이는 각 출판사의 검인정교과서가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한시의 수준과 내용이 大同小異하리라는 것은 自명한 일이고 보면, 수준과 내용은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한문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한 것이

있지만,<sup>1)</sup> 주로 出典과 原文의 誤謬에 대해서만 논하였기에, 본고에서는 한시 해석에 있어서의 懸吐와 對偶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出典과 原文의 誤謬 문제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겠다.

漢詩의 올바른 해석은 漢詩를 확실하게 理解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教科書에 選別된 漢詩의 藝術性과 文學性이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야만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그 優秀性이 확인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는 모두 10종이다. 10종의 著者と 出版社는 다음과 같다. 이하 본문에서는 아래의 번호로 著者と 出版社를 표시한다.(無順임)

- ① 김상홍·최창구·이강렬·원창희, 고등학교 『한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② 안재철·원용석·김동규, 고등학교 『한문』, 대한교과서(주).
- ③ 이명학·장호성·현상곤·임완혁, 고등학교 『한문』, (주)두산.
- ④ 이희목·진재교·최돈욱·신영주,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 ⑤ 김경수·김성룡·김봉숙·김평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 ⑥ 신표섭·이병주·이운찬·강경모·백광호·허시봉·류기영·이태희,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 ⑦ 최상익·이병혁·허남욱·이영우, 고등학교 『한문』, (주)금성출판사.
- ⑧ 유성준·김동환·유형규, 고등학교 『한문』, (주)청색.
- ⑨ 이수철·곽치영, 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 ⑩ 박갑수·이상진·최상근, 고등학교 『한문』, (주)지학사.

---

1) 김상홍,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문제점-한시단원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제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장호성, 「한문과 교재의 문제-제7차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제2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II. 絶句의 문제

詩體中에서 가장 짧고 명료한 것이 絶句詩이다. 절구시는 起·承·轉·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起句는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며, 承句는 起句의 시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며, 轉句는 시상에 변화를 주어 전환시키며, 結句는 시상을 마무리 짓고 주제를 담아 끝을 맺는 부분이다. 절구시의 對偶는 八句로 이루어진 律詩의 반을 截取해서 이루어지니, 起句와 承句가 對偶가 되기도 하고, 轉句와 結句가 對偶가 되기도 하며, 起句와 承句, 轉句와 結句가 모두 對偶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전혀 對偶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sup>2)</sup> 따라서 대우가 되는 구절의 정확한 평가 되는 해석이 시의 운율과 문학성을 살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최고로 압축된 詩語를 작가의 의도에 맞게 절묘한 해석을 가하는 것이 시에 예술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석을 가할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오언시에서는 두자와 석자의 구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주고, 칠언시에서는 녀자와 석자, 또는 두자와 다섯 자의 구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주어야 한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규칙적인 해석의 틀을 보여줄 수가 있고, 해석도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질 것이다.

먼저 ①⑤⑦⑨의 교과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정몽주의 「春興」을 보자.

春雨細不滴  
夜中微有聲  
雪盡南溪漲  
草芽多少生

위시의 起句와 承句는 대부분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중에

2) 신용호 편술,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1. pp.96-101 참조.

는 어렴풋이 소리가 들리네' 정도로 해석이 되어 大同小異한데, 문제는 轉句와 結句의 해석이다.

轉句는 ①⑤⑨의 교과서는 모두 吐는 '하니'로 달려있고, 해석도 '눈 녹아 남쪽 시내 불어나리니' 정도로 아우를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⑦의 교과서에서는 토를 '이면'으로 달고 해석도 '눈 녹아 남쪽 시내 불어나면'으로 하였으니, 아직 봄이 오지 않고 눈이 녹지 않은 상태라면 「春興」이란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結句는 ①⑤⑨의 교과서는 모두 토를 '고'나 '가'를 달아 의문을 취하였는데, 아마도 '多少'를 관념적으로 '얼마'로 해석한데서 기인한 듯하다. 또 ⑦의 교과서는 '이리'란 토를 달았는데 한문의 토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듯하고, 해석을 '풀썩도 조금쯤 돌아나겠지'라고 하여 '多少'를 '조금'이라고 풀이하었는데 역시 「春興」이란 제목과 어울리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轉句는 여기에서 起句와 承句에서 이어지는 봄의 흥취의 진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해석은 '눈이 녹아 남쪽 시내 불어나리니'로 해야 할 것이고, 토는 '하니' 또는 '하리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結句는 '多少'의 의미가 '상당히'도 있음을 간과한 듯하니, 토는 '이라' 또는 '이리라' 정도로 달고, 해석은 '풀썩이 상당히 돋았으리라'로 하는 것이 앞의 구절과 이어져 봄의 정경을 나타내며 흥취를 이어가는 전체적인 문맥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는 “春雨細不滴이러니, 夜中微有聲이라. 雪盡南溪漲하리니, 草芽多少生이리라.”정도가 바람직할 듯하고, 해석은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중에야 어렴풋이 소리가 있구나. 눈이 녹아 남쪽 시내 불어나리니, 풀썩이 상당히 돋았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도 바람직하고, 봄의 흥취가 진행되어 나타나는 만물의 소생과정과도 합당할 것이다.

'多少'의 해석에 대해서는 ①의 교과서에 나오는 맹호연의 「春曉」에서도 볼 수 있다.

春眠不覺曉  
處處聞啼鳥  
夜來風雨聲  
花落知多少

먼저 교과서 ①의 起句와 承句의 해석을 보면, ‘봄잠에 날 새는 줄 몰랐는데, 곳곳에서 새 우는 소리 들리네.’라고 하였는데, 기구의 해석을 ‘몰랐는데’로 끝냈다면 당연히 卍도 ‘런대’나 ‘한대’로 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卍는 ‘러니’로 달려있으니, 해석을 ‘봄잠에 새벽을 깨닫지 못했더니’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轉句와 結句는 상당히 微妙하여서 해석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①의 교과서에서는 ‘밤사이 비바람 소리로 보아, 꽃이 얼마나 졌을까?’라고 하였는데, 轉句와 結句의 文脈이 부드럽지가 못하다. 轉句의 해석을 ‘소리로 보아’로 끝냈다면 卍도 당연히 ‘하여’로 달아야 하는데, 卍는 ‘에’로 달아놓았으니, 해석도 ‘밤사이 비바람 소리에’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結句의 해석도 ‘多少’의 해석을 ‘상당히’로 보아, ‘꽃 떨어짐이 상당했음을 알겠네.’로 하는 것이 제목인 「春曉」에 어울리고, 文脈에도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여 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는 “春眠不覺曉러니, 處處聞啼鳥라. 夜來風雨聲에 花落知多少라” 정도로 다는 것이 합당할 듯하고, 해석은 “봄잠에 새벽을 깨닫지 못했더니, 여기저기 우는 새소리 들리는구나. 밤사이 비바람 소리에 꽃 떨어짐이 상당했음을 알겠네.”로 하는 것이 가는 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 시의 문학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轉句에서 結句로 이어지는 문맥이 자연스러워져 한층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음은 ③의 교과서에 나타난 王之渙의 「登鶴雀樓」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대로 달았다.)

白日依山盡이요,

黃河入海流라.  
 欲窮千里目하여,  
 更上一層樓라.

먼저 교과서 ③의 起句와 承句의 해석을 보면 ‘해는 산에 기대어 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起句와 承句는 서로 對偶가 되는 구절이다. 해석도 對偶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白日’과 ‘黃河’가 흰색과 황색으로 대를 이루고, 해와 강이 對를 이루며, ‘依’와 ‘入’, ‘山’과 ‘海’, ‘盡’과 ‘流’가 對를 이루어서, 해석도 ‘밝은 해는 산에 의지하여 다하고, 황하는 바다에 들어가 흐른다.’로 하여야 색채와 자연의 대비되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轉句와 結句도 서로 對偶를 이루는데, 특히 ‘千’과 ‘一’의 숫자의 對가 絶妙하다. 따라서 해석도 이 숫자의 對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천리를 다 바라보려고, 다시 누각을 한 층 오르네.’란 해석으로는 對偶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韻律을 살리는 데도 부족하니, ‘천리의 눈을 다하고자 하여, 한 층 누각을 다시 오르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체의 해석은 “밝은 해는 산에 의지하여 다하고, 황하는 바다에 들어가 흐른다. 천리의 눈을 다하고자 하여, 한 층의 누각을 다시 오르네.”로 하는 것이 起句와 承句, 轉句와 結句의 對偶를 살리면서 韻律을 주고, 누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자연과의 조화가 살아나는 해석이 될 것이다.

숫자로 對를 하는 경우는 ⑤의 교과서 <단원 VI. 시의 향기> 앞머리에 나오는 崔致遠의 「秋夜雨中」에서도 볼 수 있다. (과에 설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단원 앞머리에 실려 있어 토와 해석이 달려있지 않다.)

秋風惟苦吟이나,  
 世路少知音이라.  
 窓外三更雨요,  
 燈前萬里心이라.

起句와 承句의 해석은 ‘가을바람에 오로지 애써 읊조리나,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구나.’이다. 轉句와 結句는 서로 對偶가 되어, ‘窓外’와 ‘燈前’, ‘三更’과 ‘萬里’, ‘雨’와 ‘心’이 각각 對를 이루는데, 여기서 ‘三更雨’나 ‘萬里心’을 ‘한 밤 비’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三更’과 ‘萬里’는 숫자로 對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석도 마땅히 숫자의 對偶를 최대한 考慮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숫자의 對는 ‘三’과 ‘萬’을 통하여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해석은 ‘창 밖에는 삼경의 비 내리고, 등잔 앞에는 만 리로 달리는 마음이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체의 해석은 “가을바람에 애써 읊조리나,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구나. 창 밖에는 삼경의 비 내리고, 등잔 앞에는 만 리로 달리는 마음이네.”로 해석이 될 것이니, 轉句와 結句의 對偶에서 느껴지는 韻律과 예술적 조화와 숫자의 對를 통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잘 표현될 수 있어, 한층 시의 생명력이 살아날 것이다.

다음은 ⑨의 교과서에 나오는 손곡 이달의 「山寺」이다. (역시 토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대로 달았다.)

寺在白雲中인데,  
白雲僧不掃라.  
客來門始開하니,  
萬壑松花老라.

교과서 ⑨의 해석을 보면, ‘절은 백운 속에 있는데, 흰 구름을 스님은 쓸지도 않네.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니, 온 골짜기에 송홧가루 날린다.’라고 하였는데, 起句와 承句와 轉句의 해석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結句의 해석 중에 마지막 ‘老’자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석대로라면 ‘날린다.’로 해석한 것 같은데, 과연 ‘老’자를 ‘날린다.’로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보통은 ‘늙었다.’ 또는 ‘쇠했다.’ 정도로 해석할 것 같은데, 독특하게 ‘날린다.’로 해석했으

니, 아마도 ‘가득하다.’ 또는 ‘떨어지다.’의 의미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역시 ‘老’자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오히려 ‘늙었다.’에서 類推하여 ‘뿌옇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그렇게 되면 해석도 ‘객이 와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니’로 해석되는 轉句와 문맥을 맞추어 ‘온 골짜기에 송홧가루 뿌영구나.’로 해석이 되니, 가장 연결이 잘되고 문학적일 듯하다. 전체의 해석은 “절이 하얀 구름 속에 있는데, 하얀 구름을 스님은 쓸지 않네. 객이 와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니, 온 골짜기에 송홧가루 뿌영구나.”로 해석될 수 있으니, ‘老’자가 ‘뿌옇다.’라고 해석이 됨에 따라 흰 구름과 절, 송홧가루와 객이 하나를 이루고, 자연과 스님이 하나가 되고, 객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절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詩想이 예술성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김만중이 海東의 ‘陽關三疊’이라고 했다는<sup>3)</sup> 정지상의 「大同江」이다. 이는 ②와 ③의 교과서를 제외한 ①④⑤⑥⑦⑧⑨⑩의 교과서에 모두 나오는데, 『東文選』에는 제목이 「送人」으로 되어있고,<sup>4)</sup> 『大東詩選』에서는 제목을 「大同江」이라 붙였으니, 「大同江」이란 제목은 아마도 정지상의 다른 작품에 「送人」이라는 제목이 있어, 이와 구분하기 위해 붙인 듯하다.<sup>5)</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른 「送人」의 제목과 구별하기 위하여 「大同江」이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먼저 起句를 살펴보자면, 교과서 ①과 ⑩은 起句의 懸吐를 ‘한대’와 ‘한테’로 달아놓고 있고, ④⑤⑥⑦⑧⑨의 교과서는 모두 起句의 懸吐를

3) 손종섭 편저, 『옛 시정을 더듬어』, 정신세계사, 1996. p.57. 참조.

4) 徐居正 外, 『東文選』, 太學社 影印, 1980.

5) 張志淵 編, 『大東詩選』, 아세아문화사, 1980.

‘하니’로 달아놓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듯하다. 먼저 ①과 ⑩의 교과서에서 起句의 토를 ‘한데’와 ‘한대’로 단 것은 古語와 現代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토이고, 기구의 해석도 ①과 ⑩의 교과서 모두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짙은데’라고 하여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 ⑤의 교과서에는 해석이 되어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④와 ⑧의 교과서는 토를 ‘하니’로 달아놓고 해석을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짙어지니’라고 풀이하어 ‘하니’라고 토를 단 것과 해석이 일치하는 듯 보이나, 다음 구인 承句의 해석을 ‘님을 떠나보내는 남포에 슬픈 노래 이는구나.’라고 하였으니, 起句와 承句가 원인과 결과가 되어 비개인 긴 독에 풀빛이 짙어지는 것하고 님을 떠나보내는 남포에 슬픈 노래가 이는 것하고의 연결이 매끄럽지가 못하다. ①의 교과서에서 起句와 承句의 해석을 보면,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 벼를 보내니 슬픔이 북받쳐 노래하네.’라고 하였는데, ‘북받쳐’가 맞춤법에 어긋나 ‘북받쳐’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起句의 ‘多’자를 ‘짙다.’(①④⑧) 또는 ‘싱싱하다.’(⑨), ‘파릇파릇하다.’(⑥), ‘푸르다.’(⑦)는 뜻으로 본 것은 풀이 많은 것을 짙은 색을 내는 것으로 보거나 싱싱한 것으로 보거나 파릇한 것으로 본 듯하여 뜻으로는 통하니 큰 문제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⑥⑦⑨의 교과서는 起句의 토를 ‘하니’로 달아놓고 해석은 ‘파릇파릇한데’ 또는 ‘푸른데’ 또는 ‘싱싱한데’로 끝나고 있어 토와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니,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으니, 토와 해석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으로 承句의 해석을 살펴보자면 ①과 ⑤의 교과서에서 ‘남포에 벼를 보내니’ 또는 ‘남포에 님을 보내니’라고 해석하여 ‘南浦’를 님이 가는 목적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南浦’는 정민의 『한시미학산책』을 보면, 일찍이 굴원이 『九歌』중 「河伯」에서 “그대의 손을 잡음이여 동으로 가서, 님을 전송함이며 남포에서.[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라고 한 이래로 시인들이 이별의 장소로 ‘南浦’란 시어를 사용했다고 하였으니,<sup>6)</sup> 여기에서도 ‘南浦’를 이별의 장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動’

자의 해석 때문에 承句 전체의 해석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울린다.’라고 해석하거나(⑦⑧⑩), ‘일렁이네.’(⑨), ‘이는구나.’(④), ‘북받치네.’(①⑥), ‘떠오르네.’(⑤)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도 ‘動’자가 ‘흔들림’, ‘요동함’, ‘일어남’ 등의 뜻이 있고 보면 ①④⑥⑨의 해석 정도가 맞는 듯하다. 그러나 承句의 해석을 좀 더 정확히 하자면 ‘남포에서 그대를 전송하니, 슬픈 노래가 북받치네.’가 가장 합당할 것이다. 起句에서 承句로 이어지는 詩想은, 起句에서 비 온 다음날의 언덕 위에 펼쳐진 풀밭의 물기 머금어 햇빛에 반짝이는 환상적인 배경에서, 어찌면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질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에서, 承句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별이 전개되는 것이다. 起句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承句의 이별은 더욱 슬프고 아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별의 예술적 표현이며 문학적 전개일 것이다.

轉句의 해석은 모든 교과서가 ‘盡’자의 해석을 ‘마르다.’로 보아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와 비슷한 의미로 하였으니, ‘盡’의 의미 속에 ‘마르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서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結句에 대한 해석은 先人들도 紛紛해서 이제현의 『櫟翁稗說』에 보면 원래 정지상의 시에는 ‘別淚年年添作波’라 하였던 것을 燕南 梁載가 ‘別淚年年漲綠波’라고 바꾸었는데, ‘作’자와 ‘漲’자가 원만하지 못하니, 마땅히 ‘別淚年年添綠波’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結句의 끝부분을 ‘添作波’로 한다면 해석은 ‘이별의 눈물 해마다 더하여 물결을 만드네.’가 될 것이고, ‘漲綠波’로 한다면 해석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을 불리네.’가 될 것이며, ‘添綠波’로 한다면 해석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을 보태네.’가 될 것이다. 왜 두 번이나 고쳐져야만 했을까? 이는 結句가 이 시의 警句로 볼 수 있는 곳이며 이별의 切切한 감정이 가장 絶妙하게 표현된 구절로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세 가지의 해

6) 정민 저,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2004. p.86. 참조.

7) 李齊賢 著·李相寶 譯, 『櫟翁稗說』, 大洋書籍, 1982, p.390. 참조.

석을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제현의 ‘添綠波’는 아마도 가슴이 퍼렇게 멎든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떨어져 푸른 물결을 더욱 푸르게 하면서 더하여준다는 표현이라고 보여 진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作’이나 ‘漲’을 ‘添’으로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전체적인 토는 “雨歇長堤草色多한대, 送君南浦動悲歌라. 大同江水何時盡고? 別淚年年添綠波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고, 해석은 “비 그친 긴 뚝에 풀빛이 짙은데, 그대를 남포에서 전송하니 슬픈 노래가 북받친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을 보태네.”가 될 것이니,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가슴 아픈 이별이 느껴지고 자신도 모르게 절실해질 것이며, 최고의 이별시란 칭송도 이러한 문학적 해석과 예술적 감상이 있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은 ‘陽關三疊’으로 유명한 왕유의 「送元二使安西」이다. 이는 ④와 ⑨의 교과서에는 本文에 나오고, ①의 교과서에는 ‘한자어 여행’에 나오며, ⑤의 교과서에는 ‘심화학습’에 나오고 해석도 일부분만 나오고 있다. (토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달았다.)

渭城朝雨浥輕塵하니,  
客舍青青柳色新이라.  
勸君更盡一杯酒하니,  
西出陽關無故人이라.

먼저 교과서 ⑨의 起句와 承句의 해석을 보면, ‘위성에 아침 비 가는 먼지를 적시고, 객사 앞 버들잎은 싱싱하기도 하다.’라고 하였는데, 기구의 ‘輕’자를 ‘가는’이라고 해석한 것은 무리가 있는 듯하다. 이는 마땅히 ‘가벼운’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기구의 해석은 ‘위성의 아침 비 가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가 바람직할 것이다. 감상에 들어가 보면, ‘輕塵’은 ‘가벼운 먼지’란 뜻도 있지만 ‘가벼운 세상’이란 뜻도 있으니, 친구와의 우정과 의리, 또는 연인과의 약속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송구의 ‘柳色’은

‘折柳’와 같은 이별할 때 주는 정표를 상징하는 관용구로 보아야 할 것이니, 해석도 ‘객사에는 푸르고 푸른 버들 빛이 새롭구나.’로 하는 것이 넘과의 추억과 약속이 새로워짐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역시 감상에 들어가 보면, 새로 돌아나는 푸른 잎에 친구나 연인과의 우정과 언약이 새로워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연인이나 친구가 꺾어준 버들가지가 여관 뒤뜰에 버려져 새로 싹이 돋아남을 의미하기도 하니, 더욱 우정과 언약의 소중함을 생각해본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다.

轉句의 ‘盡’자는 ①④⑨의 교과서 모두 ‘進’자로 되어있는데, 이는 이미 김상홍이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문제점」<sup>8)</sup>에서 밝혀놓았듯이 ‘盡’자로 바꾸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해석도 ‘다시 술 한 잔 비우기를 그대에게 권하니’로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結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어가 바로 ‘故人’이니, ①의 교과서는 해석을 ‘인제 양관에 가면 어느 친구 있으랴’라고 하였으니, 양관을 사신가는 장소로 본 듯하다. 양관은 지금의 감숙성 돈황현에 있는 중국의 국경 지대이니, 서쪽으로 국경을 벗어나는 관문인 것이다. 그리고 ‘無故人’을 ‘어느 친구 있으랴’로 해석한 것은 너무 지나친 의역으로 보이니,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도 없으리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④의 교과서에는 이 부분을 해설하여 ‘양관 땅을 나서면 한 잔 술을 권해 줄 벗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故人’을 ‘술 권하는 친구’라는 협소한 의미로 본 것이다. 여기에서 ‘故人’은 ‘마음 놓고 술 마실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긴장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같이 취할 수 있는 친구’이며, ‘실언이나 실수도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말한 것이다. 전체의 해석은 “위성의 아침 비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객사의 푸르고 푸른 버들 빛이 새롭구나. 한 잔의 술 다시 비우기를 그대에게 권하니, 서쪽으로 양관을 나가면 친구도 없으리라.”로 될 것이니, 起句와 承句에 들어있는 속뜻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진짜 친구는 이

8) 김상홍, 앞의 논문, pp.40-41. 참조.

제 다시없으리라는 結句의 의미가 다가오며 절절한 이별의 정이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다음은 ⑩의 교과서에 나오는 두보의 「絶句」이다. 이는 『杜詩諺解』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했던 시이기에 더욱 친밀한 시이다. 따라서 해석에 대해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해석의 모범으로 제시하고자한다. (본문의 토와 해석은 필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붙인 것임.)

江碧鳥愈白이요,  
山青花欲然이라.  
今春看又過하니,  
何日是歸年고?

이 시는 起句와 承句가 對偶가 된다. 따라서 ‘江’과 ‘山’, ‘碧’과 ‘靑’, ‘鳥’와 ‘花’, ‘愈’와 ‘欲’, ‘白’과 ‘然’은 서로 對가 되며, 독특하게도 한 句의 안에서도 서로 對를 이루었으니, 起句에서는 ‘江’과 ‘鳥’, ‘碧’과 ‘白’이 그러하며 承句에서는 ‘山’과 ‘花’, ‘靑’과 ‘然’이 그러하다. 각각 사물은 사물끼리, 색채는 색채끼리 좋은 對를 갖추고 있다. 특히 ‘白’과 ‘然’, ‘靑’과 ‘然’에서 보여지는 색채의 對는 ‘然’자가 ‘불타다’의 뜻으로 ‘붉은 색’을 나타내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承句의 ‘然’자는 『杜詩諺解』<sup>9)</sup>와 『杜詩詳注』<sup>10)</sup>·『杜詩澤風堂批解』<sup>11)</sup>에는 모두 ‘燃’자로 되어 있으나, ‘燃’자는 ‘불타다.’의 뜻으로 ‘然’자와 서로 통용되는 한자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 承句의 해석은 부드럽지가 못하니, 『杜詩諺解』에 ‘산이 푸르니 꽃 빛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풀이가 되어있어<sup>12)</sup>, 아마도 ‘산이

9) 국어국문학총림, 『杜詩諺解』, 대제각, 1988, p.263. 참조.

10) 杜甫 撰·仇兆鰲 注, 『杜詩詳注』,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중화민국 73년, p.1135. 참조.

11) 李植, 『杜詩澤風堂批解』, 震友會 影印, 단기 4230년, p.898. 참조.

12) 국어국문학총림, 『杜詩諺解』, 앞의 책.

푸르니 꽃이 불타는 것 같구나.’로 해석한 모양인데, 고등학생들에게 ‘欲然’이 ‘불타는 것 같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차라리 ‘불타고자 한다.’라고 해석하던지, 아니면 문학적인 해석을 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轉句에서는 시상이 갑자기 전환되어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였고, 結句에서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주제로 드러내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起句와 承句에서의 절묘한 對偶를 통한 운율과 예술적 표현, 문학적 느낌이 轉句와 結句의 주제와 연결되어 起句와 承句에서 느껴지는 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轉句와 結句에서 느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진다.

### Ⅲ. 律詩의 문제

律詩는 首聯과 尾聯은 散句로 對偶를 이루지 않고, 頷聯과 頸聯은 出句와 對句가 반드시 對偶를 이루어야 한다.<sup>13)</sup> 따라서 律詩에서는 시의 운율과 예술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이 바로 頷聯과 頸聯이며, 이 부분에 의해 시 전체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은 위에 나온 정몽주의 「春興」이란 시가 두보의 「春夜喜雨」의 환골탈태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 두보의 「春夜喜雨」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이는 아마도 이병주의 견해에서 비롯된 듯한데,<sup>14)</sup>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에 보면 紫霞 申緯가 일찍이 회녕전에 올라 지었다는 「會寧鎮」시에 “하늘은 둘러싸인 흰색과 둘러싸인 푸르름 밖으로 드리워지고, 가을은 붉은 채색과 점점이 검은 속으로 들어간다.[天垂繚白縈靑外, 秋入丹砂点漆中]”라고 한 聯의 前句가 육유의 시에 “하늘을 둘러싸인 흰색과 둘러싸인 푸르름 밖으로 드리워지고, 사람은 놀란 붉음과 성난 푸름 속

13) 김상홍 저, 『漢詩의 理論』,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pp.122-168. 참조.

14) 이병주 저, 『두보』-시와 삶-, 민음사, 1993. p.166. 참조.

에 있네.[天垂繚白縈靑外, 人在駭紅忿綠中]”라고 한 聯의 前句와 같아서 훗날 사람들이 자기가 육유의 시를 표절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육유의 시를 읽기 전에 지은 것이어서 詩境이 간혹 옛사람에 이를 수 있음을 기뻐했다고 했으니,<sup>15)</sup> 함부로 표절이니 환골탈태니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매우 삼가야 할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물며 고려 말을 대표하는 三隱의 한 사람이고, 조선 성리학의 시조로 불리어지는 정몽주의 시에 대한 評이고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시는 ②의 교과서의 본문과 ①의 교과서 ‘본문 이해의 길잡이’에 들어있다. (토는 ②의 교과서에 달려있는 것을 그대로 달아보았다.)

好雨知時節하니	當春乃發生이라.
隨風潛入夜러니	潤物細無聲이라.
野徑雲俱黑한대	江船火獨明이라.
曉看紅濕處하면	花重錦館城이리.

위 시에서 頷聯과 頸聯은 반드시 對偶를 맞추어야 하는 聯이다. 해석도 對偶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시에서 중요시하는 운율과 시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①의 교과서에서 頷聯의 해석을 보면,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만물을 적시되 소리도 없네.’라 하였는데, 前句의 해석이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라고 했으면 後句의 해석도 ‘만물을 적셔 가늘어 소리가 없네.’로 하는 것이 對偶에 바람직할 것이다.

②의 교과서에도 문제가 있으니, 먼저 首聯의 前句 해석에 ‘반가운 저 비는 시절을 알고’라 했으니, 해석대로라면 ㅌ도 ‘하니’가 아닌 ‘하고’로 붙여야 옳은데, 토는 ‘하니’로 달려있어서 토와 해석의 일치가 요구된다. 後句의 해석은 ‘봄이 되자 바로 내리는구나.’하고 하였는데, 이는 『杜詩諺解』에도 ‘봄을 당해서 발생하게 한다.’로 되어있고,<sup>16)</sup> 『杜詩澤風堂批

15) 김태준 저·최영성 역주, 『조선한문학사』, 시인사, 1997, p.247. 참조.

解』에도 ‘發生萬物’이라 하였고,<sup>17)</sup> 『杜詩詳注』에서도 ‘春氣發而百草生’이라 하였으니,<sup>18)</sup> 의미는 비슷하지만 ‘봄을 당하여 이에 발생하게 하니’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頷聯의 해석은 ‘바람 따라 밤중에 몰래 스며들어,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네.’하고 하였는데, ‘隨風’과 ‘潤物’, ‘潛’과 ‘細’, ‘入夜’와 ‘無聲’이 서로 對가 됨을 생각한다면, 해석도 對를 맞추어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만물을 적시나 가늘어 소리가 없네.’가 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前句의 吐를 ‘하니’로 달았는데, 해석대로라면 ‘하여’로 달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다는 것이 문맥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頸聯의 해석은 ‘들길에는 구름 끼어 킁킁한데, 강에 뜬 배의 불빛만 유독 밝구나.’라고 하였고, 前句의 吐 역시 해석을 따라 ‘한대’로 하였는데, 이것도 對偶를 고려하여 해석을 하면 ‘들길에는 구름이 모두 어둡고, 강배에는 등불만 홀로 밝구나.’라고 하는 것이 對偶에 더 어울릴 것 같다. 따라서 前句의 吐도 ‘이요’로 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杜詩諺解』에도 ‘들길에는 구름이 다 어둡고, 강배에는 불이 홀로 밝구나.’라고 되어있다.<sup>19)</sup> 尾聯의 해석에는 出句는 ‘새벽녘 불그레 젖은 곳을 보면’이라 하고 吐도 해석을 따라 ‘하면’으로 하였는데, 이는 對句와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맥으로 보아 ‘하니’로 토를 달아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로 하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對句에서는 ‘重’자에 대한 해석에 대해 『杜詩澤風堂批解』에는 ‘帖花重意’라 하여 ‘축 처진 꽃이 무겁다는 뜻’이라 하였고,<sup>20)</sup> 『杜詩詳注』에서도 梁나라 簡文帝의 시에 나오는 ‘젖은 꽃가지가 무거워짐을 깨닫네.〔漬花枝覺重〕’라는 구절을 예로 들어 ‘지난 비에 붉게 젖어서, 꽃가지가 무거워진 듯함을 말한 것이다.〔言經雨紅濕, 花枝若重也〕’라고 풀이하였으

16) 국어국문학총림, 『杜詩諺解』, 앞의 책, p.317. 참조.

17) 李植, 『杜詩澤風堂批解』, 앞의 책, p.612. 참조.

18) 杜甫 撰·仇兆鰲 注, 『杜詩詳注』, 앞의 책, p.799. 참조.

19) 국어국문학총림, 『杜詩諺解』, 앞의 책, p.317. 참조.

20) 李植, 『杜詩澤風堂批解』, 앞의 책, p.612. 참조.

니,<sup>21)</sup> 이는 둘 다 ‘重’의 의미를 ‘무겁다.’라는 뜻으로 본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결국 의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니, 『杜詩諺解』를 따라<sup>22)</sup> ‘맑이 피었구나.’로 하는 것이 우리 국어의 문맥상 무난할 듯하다.

전체적인 토는 “好雨知時節하니, 當春乃發生이라. 隨風潛入夜하여 潤物細無聲이라. 野徑雲俱黑이요 江船火獨明이라. 曉看紅濕處하니 花重錦館城이라.”라고 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해석은 “좋은 비 시절을 아 니, 봄을 맞아 이에 발생하게 하는구나.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만 물을 적시나 가늘어 소리가 없네. 들길에는 구름이 모두 어둡고, 강배에 는 등불만 홀로 밝구나.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이 활 짝 피었겠구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⑨의 교과서에 나오는 김시습의 「有客」이다. (토는 ⑨의 교과 서대로 달아놓았다.)

有客清平寺하니	春山任意遊라.
鳥啼孤塔靜이요	花落小溪流라.
佳菜知時秀요	香菌過雨柔라.
行吟入仙洞하니	消我百年愁로다.

먼저 首聯의 해석을 보면, ‘나그네 청평사에 들렀네. 봄 산속에 멋대 로 놀아본다.’라고 하였는데, 出句의 끝이 ‘들렀네.’로 되어 있으면 당연 히 卍도 ‘라’가 붙어야 될 터인데, ‘하니’가 붙어있다. 만약 토대로 하면 해석이 ‘나그네 청평사에 들렀으니’가 되어 문맥상 對句와의 연결이 부 드럽지 못하게 된다. 卍는 마땅히 ‘하여’가 되어야 하고, 해석도 토를 따 라 ‘청평사에 손님 있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對句의 해석은 큰 문제가 없는 듯하니, ‘봄 산에서 뜻에 맡겨 노니는구나.’ 정도로 하면 부드러워 질 것이다.

21) 杜甫 撰·仇兆鰲 注, 『杜詩詳注』, 앞의 책, p.799. 참조.

22) 국어국문학총림, 『杜詩諺解』, 앞의 책, p.317. 참조.

頷聯과 頸聯은 對偶를 이루는 聯이니, 해석도 對偶에 맞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頷聯의 해석은 ‘외로운 탑은 고요한데 새가 울고, 작은 시냇물 흐르는 위로 꽃이 지네.’라고 하였는데, ‘鳥啼’와 ‘花落’, ‘孤塔’과 ‘小溪’, ‘靜’과 ‘流’가 서로 對를 이루고 있으니, 해석도 마땅히 出句가 ‘외로운 탑 고요한데 새가 울고’로 해석되었으면 對句도 ‘작은 시내 흐르는데 꽃이 떨어진다.’로 되어야 할 것이다. 頸聯의 해석은 ‘아름다운 나물은 시절을 알아 돌아나고, 향기로운 버섯은 비를 맞아 더욱 부드러워다.’라고 하였는데, 역시 ‘佳菜’와 ‘香菌’, ‘知時’와 ‘過雨’, ‘秀’와 ‘柔’가 서로 對를 이루니, 위의 해석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부드럽게 바꾸면 出句의 해석은 ‘아름다운 나물은 때를 알아 빼어나고’라고 할 수 있으니, 對句의 해석도 ‘향기로운 버섯은 비를 맞아 부드러워다.’ 정도로 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尾聯은 元典에 의거하여 끝의 ‘憂’자를 ‘愁’자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23)</sup> 해석을 보면 ‘홍얼거리며 선동으로 들어서니, 나의 오랜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하였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조금 부드럽게 바꾼다면 ‘거닐며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나의 오랜 근심이 녹아버리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토는 “有客淸平寺하여 春山任意遊라. 鳥啼孤塔靜이요 花落小溪流라. 佳菜知時秀요 香菌過雨柔라. 行吟入仙洞하니 消我百年愁로다.”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해석은 “청평사에 손님 있어, 봄 산을 뜻에 맡겨 노니는구나. 외로운 탑은 고요한데 새가 울고, 작은 시내 흐르는데 꽃이 떨어지네. 아름다운 나물은 때를 알아 빼어나고, 향기로운 버섯은 비를 맞아 부드러워다. 거닐며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나의 오랜 근심이 녹아버리네.”가 될 것이다.

다음은 역시 ⑨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백의 「登金陵鳳凰臺」이다. (토는

23) 김시습 저, 『매월당집』 「시집」(卷13, 23a), 『韓國文集叢刊』 13,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1988.), p.293. 「有客」.

역시 ⑨의 교과서를 따랐다.)

鳳凰臺上鳳凰遊하니	鳳去臺空江自流라.
吳宮花草埋幽徑이요	晉代衣冠成古邱라.
三山半落靑天外요	二水中分白鷺洲로라.
總爲浮雲能蔽日하니	長安不見使人愁로다.

먼저 首聯의 해석을 보면, ‘봉황대 위에서 봉황이 노닐더니, 봉황은 떠나고 대는 텅 비고 강물만 저절로 흘러’라고 하였는데, 出句에서 해석이 ‘노닐더니’로 끝나고 있는데, 따는 ‘하니’로 달려 있으니, 과거를 나타낼 때는 토를 ‘러니’로 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出句의 해석에는 문제가 없고, 對句의 해석에는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먼저 따가 ‘라’로 끝나고 있으니, 단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은 ‘봉황은 가서 대는 비고 강만 저절로 흐르는구나.’가 적당할 것이다.

頷聯은 對偶를 이루는 聯으로 ‘吳宮’과 ‘晉代’, ‘花草’와 ‘衣冠’, ‘埋’와 ‘成’, ‘幽徑’과 ‘古邱’가 서로 對를 이루니, 해석도 이를 맞추어야 운율과 예술성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을 보면 ‘오궁의 화초는 깊은 길 속에 묻혔고, 진나라 때의 관리들은 옛 무덤이 되었구나.’로 되어있어,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

頸聯은 역시 對偶를 이루는 聯으로 ‘三山’과 ‘二水’, ‘半落’과 ‘中分’, ‘靑天外’와 ‘白露洲’가 서로 對를 이루니, 해석도 이를 고려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석을 보면 ‘삼산은 푸른 창공의 바깥으로 반쯤 걸렸고, 두 물이 가운데로 나뉘니 백로주로다.’라고 하였는데, 對偶를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三山’은 산 이름이고, ‘二水’는 물 이름이니, 해석도 출구는 ‘삼산은 푸른 하늘 밖으로 반쯤 떨어지고’로 하는 것이 부드러울 것 같고, 대구의 해석은 ‘이수는 백로주에서 가운데가 나뉘었구나.’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尾聯은 해석을 보면 ‘모두가 덧없는 구름이 되어 해를 가리니, 장안은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에 젖게 하누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浮雲’은 ‘해를 가리는 구름’이며 ‘간신’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長安’은 ‘임금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으니, 해석은 ‘모두 뜬 구름이 되어 해를 가리고 있으니, 장안을 보지 못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케 한다.’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전체적인 토는 “鳳凰臺上鳳凰遊러니, 鳳去臺空江自流라. 吳宮花草埋幽徑이요, 晉代衣冠成古邱라. 三山半落青天外요, 二水中分白鷺洲라. 總爲浮雲能蔽日하니, 長安不見使人愁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해석은 “봉황대 위에 봉황이 노닐더니, 봉황은 가서 대는 비고 강만 저절로 흐르는구나. 오궁의 화초는 그윽한 길에 묻혀있고, 진대의 관리는 옛 무덤을 이루었구나. 삼산은 푸른 하늘 밖으로 반쯤 떨어지고, 이수는 백로주에서 가운데가 나뉘었구나. 모두 뜬구름이 되어 해를 가리고 있으니, 장안을 보지 못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네.”가 될 것이다.

다음은 ⑩의 교과서에 나오는 李珣의 「花石亭」이다.

林亭秋已晩한데	騷客意無窮이라.
遠水連天碧이요	霜楓向日紅이라.
山吐孤輪月이요	江含萬里風이라.
塞鴻何處去요?	聲斷暮雲中이라.

먼저 首聯의 해석을 보면, ‘숲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생각은 끝이 없어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對句의 해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出句의 해석에는 약간 문제가 있으니, ‘晩’자를 ‘깊다.’로 풀이한 것이다. 이는 孟秋·仲秋·晩秋의 ‘晩秋’를 가리키니, 달로는 ‘9월’이고, 절기로는 ‘늦었다.’라든가 ‘끝나간다.’ 정도의 해석이 알맞을 것이다. 그리고 해석은 ‘깊으니’로 끝나고 있는데, 吐는 ‘한데’로 붙였으니, 토와 해석이 일치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은 ‘숲 속 정자 가을이 이미

늦었으니, 시인의 생각은 끝이 없구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頷聯은 對偶를 이루는 聯으로 ‘遠水’와 ‘霜楓’, ‘連’과 ‘向’, ‘天’과 ‘日’, ‘紅’과 ‘碧’이 서로 對를 이루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운율도 갖출 수 있고 시의 예술성도 살아날 것이다. 해석을 보면 ‘먼 강물은 하늘에 잇달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빛 받아 붉구나.’라고 하였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좀 더 對와 운율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을 가하면, ‘먼 물은 하늘에 이어져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구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頸聯은 역시 對偶를 이루는 聯으로 ‘山’과 ‘江’, ‘吐’와 ‘舍’, ‘孤輪’과 ‘萬里’, ‘月’과 ‘風’이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해석을 보면, ‘산은 외로운 둥근달을 토해내고, 강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고 있네.’라고 하였는데,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出句의 ‘孤’와 對句의 ‘萬’은 숫자로 對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최대한 살려야 對偶의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해석도 ‘산은 하나의 둥근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 리의 바람을 품는구나.’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孤’자를 ‘하나’로 해석한 것은 ‘孤掌難鳴’을 해석함에 ‘하나의 손바닥으로는 울리기 어렵다.’에서와 같은 방법을 취한 것이다.

尾聯의 해석은 ‘변방의 기러기 어느 곳으로 가느냐?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라 하여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체적인 토는 “林亭秋已晚하니, 騷客意無窮이라. 遠水連天碧이요, 霜楓向日紅이라. 山吐孤輪月이요, 江含萬里風이라. 塞鴻何處去오? 聲斷暮雲中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해석은 “숲 속 정자 가을이 이미 늦었으니, 시인의 생각은 끝이 없구나. 먼 물은 하늘에 이어져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구나. 산은 하나의 둥근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품는구나. 변방 기러기 어느 곳으로 가느냐? 소리가 저문 구름 속으로 끊기는구나.”가 될 것이다.

다음은 ⑦의 교과서에 나오는 李崇仁의 「新雪」이다. 律詩의 모범적인 해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의 토와 해석은 필자가 가장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여 붙인 것임.)

蒼茫歲暮天에,	푸르고 아득한 세밑 하늘에,
新雪遍山川이라.	새로 온 눈이 산천에 두루 내렸네.
鳥失山中木하고,	새는 산속의 나무를 잃고,
僧尋石上泉이라.	스님은 돌 위의 샘을 찾는다.
飢鳥啼野外한대,	굶주린 새는 들녘에서 우는데,
凍柳臥溪邊이라.	얼어붙은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누웠네.
何處人家在오?	어느 곳에 인가가 있는가?
遠林生自煙이라.	먼 숲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네.

먼저 首聯의 해석을 보면, ‘아득한 세밑의 하늘, 첫눈이 산천에 두루 내렸네.’라고 하였는데, 출구에서 따는 ‘에’로 붙여놓고 해석은 ‘하늘’로 끝맺고 있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고등학생임을 감안한다면 해석도 ‘하늘에’로 하여야 할 것이고, ‘蒼茫’을 ‘아득한’이라고만 해석하면 ‘蒼’자의 해석이 빠져 길고 먼 하늘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蒼’자의 해석을 삽입하여 ‘푸르고 아득한’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은 ‘푸르고 아득한 하늘에’가 될 것이다. 對句에서는 ‘新雪’을 ‘첫눈’이라고 하였는데, 물론 ‘新雪’이 ‘첫눈’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여기에서는 시절이 ‘歲暮’인데 ‘첫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계절의 모습으로는 부적당하다. 따라서 ‘새로 온 눈’으로 하여 ‘세밑에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눈’으로 보아야 할 듯하고, 해석도 ‘새로 온 눈이 산천에 두루 내렸네.’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頷聯의 해석은 ‘새들은 산중의 나무를 잃고, 스님은 돌 위의 샘물을 찾네.’라고 하여 별 문제가 없는 듯하고, 頸聯의 해석은 ‘굶주린 까마귀는 들녘에서 울고, 얼어붙은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누워있네.’라고 하였는데, 먼저 ‘들녘’의 맞춤법이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 出句에서 토는 ‘한대’로 붙여져 있고 해석은 ‘울고’로 끝나고 있는데, 토와 해석을 일치시키자면 해석도 ‘굶주린 까마귀 들녘에서 우는데’가 되어야

할 것이다.

尾聯의 해석은 ‘어느 곳에 인가가 있는지, 멀리 숲에서 흰 연기 피어 오르네.’라고 하였는데, 出句에서 ‘何’자가 의문사인 만큼 해석도 의문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해석은 ‘어느 곳에 인가가 있는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對句에서는 ‘遠林’을 쪼개어 ‘멀리 숲에서’라고 해석하였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낱말로 보아 ‘먼 숲’이라고 하는 것이 부드러울 듯하다. 따라서 해석은 ‘먼 숲에서 하얀 연기 피어오르네.’가 좋을 것이다.

#### IV. 結語

본고는 보다 나은 한문 교과서의 編著와 보다 바람직한 漢文教育을 摸索하는 과정의 하나로 作成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편찬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상에 있어서의 漢詩를 해석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현토와 대우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논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한 것이다.

漢詩의 올바른 해석은 漢詩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교과서에 선별된 漢詩의 예술성과 문학성이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야만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그 우수성이 확인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詩體중에서 가장 짧고 명료한 것이 絕句詩이다. 絕句詩는 起·承·轉·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起句는 詩想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며, 承句는 起句의 시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며, 轉句는 詩想에 변화를 주어 시상을 전환시키며, 結句는 시상을 마무리 짓고 주제를 담아 끝을 맺는 부분이다. 절구시의 對偶는 八句로 이루어진 律詩의 반을 截取해서 이루어지니, 起句와 承句가 對偶가 되기도 하고, 轉句와 結句가 모두 對偶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전혀 對偶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

다. 따라서 對偶가 되는 구절의 정확한 對가 되는 문학적 해석이 詩의 운율과 문학성을 살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최고로 압축된 詩語를 작가의 의도에 맞게 絶妙한 해석을 가하는 것이 시의 예술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해석을 가할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五言詩에서는 되도록 두자와 석자의 구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해 주고, 七言詩에서는 녀자와 석자, 또는 두자와 다섯자의 구성을 고려하여 해석해 주어야 한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은 규칙적인 해석의 틀을 보여줄 수 있고, 해석도 부드러워질 것이다.

律詩는 首聯과 尾聯은 散句로 對偶를 이루지 않고, 頷聯과 頸聯은 出句와 對句가 반드시 對偶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律詩에서는 시의 운율과 예술성을 살려야 하는 부분이 바로 頷聯과 頸聯이며, 이 부분에 의해 시 전체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頷聯과 頸聯의 對偶에 맞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

漢詩에서는 吐를 일정하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이는 한시를 노래로 생각하고 읊조릴 때의 토를 붙이는 것이다.) 교과서의 漢詩는 읊조리는 것보다는 해석하고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吐를 붙여야 할 것이다. 이는 배우는 대상이 고등학생인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文章에서도 그러하지만 詩에서도 懸吐는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要因이 된다. 吐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句節의 해석이 달라지고 다음 句節과의 文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吐를 붙이는 것은 詩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對偶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주로 같은 종류가 對를 이루어 사물은 사물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색채는 색채끼리 對를 이룬다. 이는 상대적인 경우가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같은 의미가 오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독자의 감정을 점점 고조시키는가 하면, 어떤 때는 독자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경우도 있다. 또 독자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슬프거나 기쁜 감정에 빠져들게도 한다. 이 모든 것이 對偶에 달려있다

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詩에서 對偶를 놓는 것은 詩의 생명력을 붙여넣는 일이며, 바로 시의 문학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만큼 중요하다.

물론 詩에서는 정확한 吐를 붙이고 對偶에 맞춘 문학적인 해석도 아주 중요하지만, 감상을 제대로 하여야 시에 숨겨진 ‘言外之意’도 찾아낼 수 있고, 漢詩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예술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감상도 吐나 對偶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 文獻>

- 국어국문학회총림, 『杜詩諺解』, 대제각, 1988.
- 金時習, 『每月堂集』, 『韓國文集叢刊』 13,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1988.
- 徐居正 外, 『東文選』, 太學社 影印, 1980.
- 李植, 『杜詩澤風堂批解』, 震友會 影印, 단기 4230년
- 李齊賢 著·李相寶 譯, 『櫟翁稗說』, 大洋書籍, 1982.
- 張志淵 編, 『大東詩選』, 아세아문화사, 1980.
- 杜甫 撰·仇兆鰲 注, 『杜詩詳注』,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중화민국 73년.
- 김경수·김성룡·김봉숙·김평호, 고등학교 『한문』, (주)교학사, 2002.
- 김상홍·최창구·이강렬·원창희, 고등학교 『한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박갑수·이상진·최상근, 고등학교 『한문』, (주)지학사, 2003.
- 신표섭·이병주·이운찬·강경모·백광호·허시봉·류기영·이태희, 고등학교 『한문』, 대학서림, 2002.
- 안재철·원용석·김동규, 고등학교 『한문』, 대한교과서(주), 2003.
- 유성준·김동환·유형규, 고등학교 『한문』, (주)청색, 2003.
- 이명학·장호성·현상곤·임완혁, 고등학교 『한문』, (주)두산, 2002.
- 이수철·곽치영, 고등학교 『한문』, 정진출판사, 2003.
- 이희목·진재교·최돈욱·신영주, 고등학교 『한문』, (주)천재교육, 2002.
- 최상익·이병혁·허남욱·이영우, 고등학교 『한문』, (주)금성출판사, 2002.

- 金相洪, 『漢詩의 理論』,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의 문제점 -한시단원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제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김태준 저·최영성 역주, 『조선한문학사』, 시인사, 1997.
- 손종섭 편저, 『옛 시정을 더듬어』, 정신세계사, 1996.
- 申用浩 編述, 『漢詩形式論』, 전통문화연구회, 2001.
- 이병주, 『杜甫』-시와 삶-, 민음사, 1993.
- 장호성, 「한문과 교재의 문제 -제7차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제2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정민,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2004.

### Abstract

*7th curriculum Chinese writing textbook Problem point of  
Chinese poem interpretation / Oh Sok Hwan\**

This library drew up one of process which Compilation of the more detailed Chinese writing textbook and which gropes the desirable Chinese writing education. So there is when interpreting the Chinese poem which is to a high school Chinese writing textbook as a matter of 7th curriculum, discusses the problem point and presenting the desirable direction around the postposition and the retort.

The right translation of the Chinese poem is a possibility becoming the method which understands positively with the Chinese poem, the artistry and artistry of literature in the Chinese poem which is sorted in the textbook to make become known well in compliance with the right translation, and the superiority could be confirmed lead it.

To be shortest the fact that is clear is a Chinese quatrain of the poem from in form of verse. The Chinese quatrain of the poem is become accomplished with composition of Gi·Seung·Jeon·Gyeol, the opening line of a poem is the part which calls forth the poetical idea, the second line of a poem inherits the poetical idea of the opening line of a poem and more develops, the third line of a poem is gives a variety to poetical idea and converts an poetical idea, the concluding part is poetical idea puts in a finishing making subject and is a part which ends. The retort of the Chinese quatrain of the poem brings a half of a style of Chinese verse which becomes accomplished a eight verse anti-becomes accomplished, the opening line of a

---

\* Chosun University / gosan-man@hanmail.net

poem and the second line of a poem becoming retort, the case where the third line of a poem and the concluding part become all retort makes be, and the retort does not become accomplished entirely. Consequently the literary interpretation where becomes the standard which the phrase where becomes the retort will become the important cause which give life to rhythm and artistry of literature of poem, the poetic diction which is compressed with top inflicts an exquisite interpretation in intention of the author to make the artistry and a vital force inspire of the poem. When together inflicting to an interpretation, the certainly such thing is not but in order to become, considering which considers the composition of two letters and three letters from a poem with five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 and interprets, and considers the composition of four letter and three letter, or two letter and five letter from a poem with seven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 and interpret, will a possibility of showing the frame of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to the students who study the Chinese poem, also the poem is gentle in interpretation.

The Suryeon and the Miryeon of the style of Chinese verse with the Sangu does not accomplish a retort, the Hamryeon and the Gyeongryeon of the style of Chinese verse with the Chulgu and the Daegu certainly does to accomplish a retort. Consequently the part must save the rhythm and the artistry of poem rightly will be the Hamryeon and the Gyeongryeon from the style of Chinese verse, and if may control the life of this in compliance with a part poem whole. Consequently the accurate interpretation which is fixes in the retort of the Hamryeon and the Gyeongryeon is important.

Appears in the various branch form which is a retort, but often become accomplished in mainly same type; the thing is among the thing, the number is among the number, and color is among the color. This the fact that the case which is relative comes is most but the case where meaning comes is many. Sometimes reader does culminates in sentiment little by little, at the

time of what kind of the case which sends to the bottom in reader sentiment. Also reader sentiment makes exploding or indulge in the sentiment which is glad and sad. That all things is running in retort, is not too much to say. Consequently the fact that puts a retort from the poem is the work which inspires the vital force of the poem, that becomes the part which is the possibility of feeling the artistry of literature and the artistry of the poem. For that reason, the interpretation that much is important about this part.

The case which the postposition uniformly attaches to the Chinese poem, but (this is to attach the postposition when the Chinese poem is reading to think the song.) The Chinese poem of the textbook interpreting and the appreciating that goal certainly means must attach the accurate postposition. When thinks that the object which learns is the high student is such. To the poem postposition interprets most becomes the cause which is important from like sentence. According to how attaching a retort;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agraph to change and the context of the next paragraph to change. consequently, Accurately attaching a postposition will be the important work to interprets and appreciates the poem.

Attaches a postposition which is accurate and also the literary interpretation which is fixes a retort, of course, are quite important to poem. Must appreciate the poem well , but, 'Un-Weo-Ji-eui' which comes to hide in the poem can seek, and the possibility the vital force and the artistry which only the poem is having appearing, therefore also to appreciate the poem is as the postposition and the retor as very important, that will be the possibility of saying.

【Key words】 postposition, retort, artistry, artistry of literature, vital force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
--